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13년 1월 1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문의 : 부품소재총괄과장 박정욱, 사무관 김태형 (02-2110-5613)

'12년 소재부품 무역흑자 사상 첫 900억불 돌파, 무역 8强 도약 견인차!

- 무역흑자 910억불 달성 및 對日의존도 사상 최저치 기록
- '13년 무역흑자 950억불대 달성 기대

□ 2012년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상 첫 무역흑자 900억불** 돌파와 **수출입 구조 다변화**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 8强' 도약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수송기계 부품 수출**(*5.2%*)과 신흥 경제권인 **對ASEAN 수출**(*6.0%*) 등이 확대되며, **무역흑자 확대**를 뒷받침하였음

< 소재·부품산업 무역동향 (통관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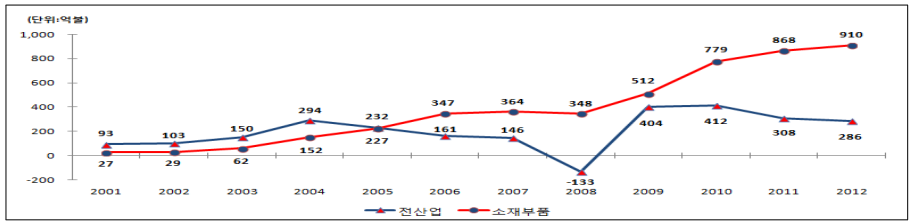
(단위 : 억불, *전년대비증감률(%)*)

구 분	'11년			'12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증감율)	수입	(증감율)	수지
전산업	5,552	5,244	308	5,481	(△1.3)	5,196	(△0.9)	285
소재·부품	2,553	1,685	868	2,534	(△0.7)	1,625	(△3.6)	910
소재	916	714	202	878	(△4.2)	659	(△7.6)	218
부품	1,637	972	665	1,657	(1.2)	965	(△0.7)	691

□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내수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 등 **대내·외 환경 악화**에 따라 '12년 소재·부품 수출은 2,534억불, 수입은 1,625억불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 **무역흑자 규모**는 910억불(전년비 42억불↑)로 **사상 첫 900억불대**를 돌파하며 최근 5년새 **약 2.6배**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여, **전 산업**에서 무역흑자 규모가 **감소**(△23억불)한 것과 **대비**를 보였음

< 全산업 및 소재·부품 무역수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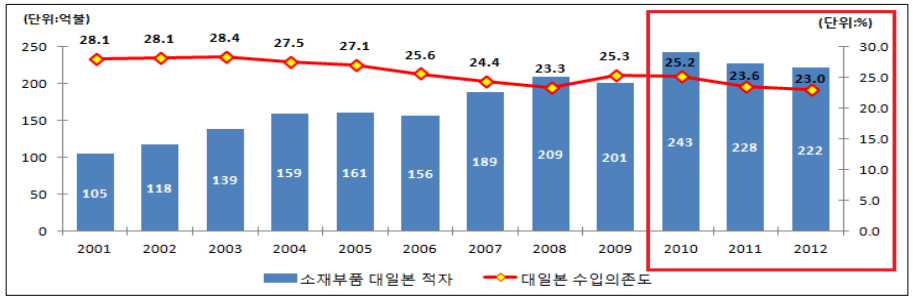


□ 한편, 지속적인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교역선 다변화** 노력 등에 따라, **안정적 교역구조**로의 **질적 개선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12년 소재·부품 對日 무역역조는 **2년 연속 감소**한 **222억불**(△6억불, *△2.5%*)이며, **對日 수입의존도** 역시 23.0%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

- 또한, 그간 對日 수입의존도가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던 점에 더해, **對日 무역역조 규모**가 **확장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점 역시 의미가 있음

< 소재·부품 對일본 수입의존도 및 對일본 역조 추이 >



○ 소재·부품의 최대 수출국인 **對중국 수출 비중**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내수위주의 성장 추진 등에 따라 **감소** 추세를 나타냄

- 아울러, **자동차부품** 중심의 **對美 수출 호조** 등 한-미 **FTA 발효 효과**와 ASEAN, 중동 등 **신흥국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 확대**에 따라 우리 소재·부품의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임

* 對中 소재부품 수출 비중 추이(%) : ('10)36.3% → ('11)34.5% → ('12)34.1%

□ 2013년에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함께, 중국 新지도부의 **경기 부양책 강화**, 신흥국 **고정투자 회복** 등에 따라, 우리 소재·부품 무역에 **긍정적 영향**이 전망됨

○ '13년 소재·부품 **무역규모는 소폭 증가**하여 수출 2,622억불, 수입 1,664억불, 무역흑자 958억불로, **2년 연속 900억불대 무역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참고 1 주요 품목별 소재·부품 무역실적 분석

□ (수송기계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한 278억불, 수입은 12.2% 감소한 78억불로 **무역수지 200억불 흑자** 기록

○ 미국·EU와의 **FTA 발효 효과** 및 국산차 품질경쟁력 향상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차체용부품**(24.8억불, *전년동기대비 34.6%*), **자동차 엔진부품**(12.9억불, *54.6%*)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 '12년 對주요국 수송기계부품 수출증가율(억불, *전년동기대비%*) : 미국(68.9억불, *12.2%*), ASEAN(9.8억불, *8.0%*), 일본(9.4억불, *21.2%*)

□ (IT 소재·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한 975억불, 수입은 2.7% 감소한 551억불로 **무역수지 423억불 흑자** 기록

○ 신흥시장의 LCD TV 수요 증가 등으로 디스플레이 부품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PC 수요 감소** 및 메모리 반도체 등의 **단가 하락**으로 수출규모는 **다소 감소**

* '12년 주요 IT 소재·부품 수출 현황(억불, *전년동기대비%*) : 디스플레이부품(283억불, *0.9%*), 반도체부품(339억불, *△5.3%*), 무선통신기기부품(82억불, *△16.7%*)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3% 감소한 430억불, 수입은 0.5% 증가한 270억불로 **무역수지 160억불 흑자** 기록

○ 높은 유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 등에 따라, 화학원소(11.8억불, *△52.3%*) 중심의 **수출 급감**

* 주요 수출 감소품목(억불, *전년동기대비%*) : 화학원소(11.8억불, *△52.3%*), 카르복실산 및 그 유도체(56.7억불, *△13.0%*), 합성고무(27.5억불, *△11.3%*)

□ (제1차금속)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한 291억불, 수입은 15.8% 감소한 264억불로 **무역수지 27억불 흑자** 기록

○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

* 주요 수출 감소품목(억불, *전년동기대비%*) :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88.5억불, *△10.2%*),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25.1억불, *△17.2%*), 냉간압연 및 압출(22.3억불, *△9.9%*)

< 품목별 소재·부품 무역실적 >

(단위 : 억불,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구 분	'11년			'12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소재·부품	2,553 *11.5*	1,685 *11.5*	868	2,534 *△0.7*	1,625 *△3.6*	910
소재	916 *24.0*	714 *15.6*	202	878 *△4.2*	659 *△7.6*	218
섬유제품	50 *15.8*	35 *14.3*	15	49 *△2.6*	29 *△18.1*	20
화합물 및 화학제품	454 *22.3*	268 *18.1*	186	430 *△5.3*	270 *0.5*	16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89 *23.5*	54 *6.0*	35	95 *6.4*	52 *△3.4*	43
비금속광물	11 *12.2*	43 *16.8*	△32	13 *23.5*	45 *4.8*	△32
제1차금속	312 *28.8*	313 *15.2*	△1	291 *△6.9*	264 *△15.8*	27
부품	1,637 *5.5*	972 *8.7*	665	1,657 *1.2*	965 *△0.7*	691
조립금속제품	49 *27.6*	20 *14.6*	29	51 *5.2*	19 *△0.1*	32
일반기계부품	229 *21.7*	180 *5.0*	50	227 *△1.0*	188 *4.7*	39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36 *△9.8*	39 *△5.9*	△3	38 *5.1*	37 *△6.6*	1
전기기계부품	201 *26.6*	148 *17.6*	53	228 *13.6*	152 *3.1*	75
전자부품	805 *△6.9*	437 *6.3*	368	773 *△4.0*	425 *△2.9*	348
정밀기기부품	53 *8.4*	59 *17.5*	△6	61 *16.8*	66 *12.0*	△4
수송기계부품	264 *23.8*	89 *16.0*	175	278 *5.2*	78 *△12.2*	200

참고 2 주요 국가별 소재·부품 무역실적 분석

□ (對일본) 對일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4% 감소한 152억불, 수입은 5.9% 감소한 374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적자 개선**(222억불, *△6억불*)

○ 제1차금속(63.4억불, *전년동기대비 △12.7%*) 및 수송기계부품(13.4억불, *△29.0%*)를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對일본 **무역적자 감소 추세**

* 對일본 수입 주요 감소 품목(억불, *전년동기대비%*) :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37.8억불, *△17.1%*), 기타자동차부품(8.7억불, *△34.0%*),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5.7억불, *△27.9%*),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합성피혁(32.4억불, *△6.0%*)

□ (對중국) 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한 865억불, 수입은 5.4% 감소한 431억불을 기록하여, **무역흑자 434억불** 기록

○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일반기계부품(49.1억불, *△26.1%*), 화합물 및 화학제품(153.4억불, *△11.5%*)등을 중심으로 **수출 다소 감소**

□ (對미국) 對미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한 228억불, 수입은 2.2% 증가한 184억불을 기록, **무역흑자 44억불** 기록

○ **한-미 FTA 발효 효과** 등으로 수송기계부품(68.9억불, *12.2%*), 일반기계부품(29.5억불, *14.9%*)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 (對EU) 對EU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0% 감소한 216억불, 수입은 1.5% 증가한 212억불을 기록하여 **4억불 무역흑자** 기록

○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자부품(56.3억불, *△17.1%*), 일반기계부품(21.6억불, *△4.4%*)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수출이 부진**

□ (對ASEAN) 對ASEAN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6.0% 증가한 327억불, 수입은 6.0% 감소한 137억불을 기록하여 **189억불 무역흑자** 기록

○ 同 지역의 **경제성장 및 SOC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일반기계부품(26.8억불, *23.9%*), 전기기계부품(21.7억불, *44.7%*)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 국가별 소재·부품 무역실적 >

(단위 : 억불)

구 분	'11년			'12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전세계	2,553.0	1,685.4	867.6	2,534.3	1,624.8	909.6
○ 아시아	1,718.3	1,146.6	571.7	1,680.4	1,088.8	591.6
– 일본	169.3	397.2	△227.9	151.7	373.9	△222.2
– 중국	881.6	455.1	426.4	865.2	431.2	434.0
– 아시아(中·日 제외)	667.4	294.3	373.2	663.5	283.7	379.8
○ 중동	134.5	23.4	111.1	147.7	23.5	124.1
– 사우디아라비아	31.4	6.9	24.5	39.2	7.8	31.4
– 아랍에미리트	34.3	4.1	30.2	30.7	3.4	27.3
○ 유럽	298.0	249.4	48.5	286.5	257.5	29.1
– 프랑스	7.8	23.0	△15.2	7.5	23.1	△15.6
– 이탈리아	17.9	17.1	0.8	15.5	19.0	△3.5
– 독일	37.2	86.0	△48.8	29.1	89.8	△60.7
– 네델란드	16.8	9.5	7.3	13.3	10.9	2.3
– 영국	16.0	15.6	0.4	18.4	15.3	3.0
– 벨기에	10.4	8.9	1.5	8.9	7.9	1.1
– 스페인	8.2	3.5	4.7	7.2	3.4	3.9
– 스위스	1.5	12.2	△10.7	1.1	13.2	△12.1
– 오스트리아	4.0	7.7	△3.7	3.6	7.1	△3.5
– 노르웨이	0.7	11.0	△10.3	0.6	15.9	△15.3
– 스웨덴	3.2	13.2	△10.0	2.8	6.4	△3.7
– 핀란드	4.9	3.9	1.0	1.9	5.7	△3.8
– 폴란드	27.3	2.1	25.2	24.9	3.4	21.5
– 체코공화국	12.4	3.0	9.4	14.6	3.1	11.5
– 루마니아	3.1	2.7	0.4	2.7	4.3	△1.6
– 불가리아	1.1	0.2	0.9	0.7	0.2	0.5
– 러시아	35.4	12.9	22.5	39.3	12.7	26.6
○ 북미	228.2	187.8	40.4	241.3	191.8	49.5
– 캐나다	14.7	7.4	7.3	13.0	7.3	5.7
– 미국	213.5	180.4	33.1	228.3	184.4	43.8
○ 중남미	131.6	33.7	97.8	136.7	29.0	107.7
– 멕시코	47.0	7.4	39.6	51.8	6.6	45.2
– 아르헨티나	5.8	0.2	5.7	4.8	0.1	4.7
– 칠레	6.0	19.6	△13.6	6.5	14.4	△7.8
– 브라질	42.8	3.4	39.4	47.5	3.1	44.4
○ 아프리카	18.9	20.3	△1.4	18.9	14.8	4.1
○ 오세아니아	23.1	23.6	△0.5	22.6	18.9	3.7
○ EU	227.1	208.6	18.5	215.7	211.7	4.0
○ ASEAN	308.0	146.1	161.8	326.5	137.4	189.1

참고 3 2013년 소재·부품 업종별 전망

업 종	주 요 내 용
섬유제품	·점진적인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의류소비 증가와 섬유 생산설비 본격 가동, 고부가 제품 생산 및 수출 확대 예상 ·FTA 효과 가시화와 동남아 국가의 성장세 지속에 따른 원·부자재 수요 증가 등으로 섬유소재 수출 회복 전망
화합물 및 화학제품	·수출단가가 하락하였으나, 호남석유, 금호석화 등 설비 신증설로 공급여력이 확대되어 향후 수요 회복시 수출 증가세 확대 기대 ·정밀화학 제품의 채산성 개선폭은 고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중국·동남아 지역 진출 확대 등으로 완만한 수출 증가 전망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선, 자동차 등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부진 효과를 對중국 및 ASEAN 수출이 상쇄하면서 회복될 것으로 예상 ·유가 강세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채산성 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비금속광물제품	·세계 수요 둔화로 상반기는 부진할 것이지만, 하반기 성장률 및 수출은 점차 회복될 전망
제1차금속제품	·재고 소진과 세계 철강 소비량의 소폭 증가, 중국 및 주요 생산국의 설비 스크랩 등으로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될 전망 ·연괴, 알루미늄 판 및 압출재, 니켈괴 등의 자동차, 철강 및 산업용 소재부품 수요 다소 증가 전망
조립금속제품	·내년 하반기까지 내수 및 수출이 호조세 지속 전망
일반기계부품	·대외여건 호전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의 新지도부 경기부양에 따라 업황 호전 가능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기대했던 Window 8 효과 미진으로 과거 DRAM 수요를 견인하던 PC 시장은 둔화된 반면, 스마트폰의 DRAM 탑재용량이 빠르게 증가해 휴대폰용 DRAM 비중 상승 전망
전기기계부품	·노후설비 교체수요를 바탕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중동·아프리카·ASEAN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 전망 ·발전기·차단기·전선 등의 수출 강세와 해외시장 개척 노력으로 호조를 보일 전망
전자부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디지털 TV 등 주력 품목의 호조로 수출 확대 전망
정밀기기부품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상반기까지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수송기계부품	·FTA 체결에 따른 수출 가격의 경쟁력 및 국산차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유럽, 중국, 중남미 등 주요 지역별 전략차종 투입효과 등에 따른 판매호조로 해외 생산이 증가할 전망